

# 살아있어 찬란한 독일 문학 이론의 아카이브

최서윤\*

[서평] 임홍배(2025), 『독일 비평사 읽기:  
괴테부터 루카치까지』, 길, 556쪽

## 1. 한 독일문학 연구자의 ‘푸른 빛’을 따라서

한국에 소개된 최초의 독일 문학 텍스트는 독일 극작가 헤르만 주더만의 대표작 『매국노』(*Der Katzensteg*)로 알려져 있다. 이 작품은 순한글로 번역되어 1908년 『대한매일신보』에 연재<sup>1</sup>되었다. 그리고 괴테의 작품은 1920년 대 초 처음 번역되었다. 1922년 괴테의 산문 『헤르만과 도로테아』(*Herrmann und Dorothea*)가 『조선일보』에 실렸다. 『젊은 베르터의 고뇌』(*Die Leiden des jungen Werthers*)도 1923년 『매일신보』 등의 지면에서 소개<sup>2</sup>되었다. 그렇지만 식민지 시기에 독일 문학이 활발히 번역·연구되지는 않았음을 잘 알려져 있다. 해방 후에도 한동안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1946년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가 설치된 후, 70년대까지도 토마스 만·헤르만 헤세·프란츠 카프카 등 몇몇 작가들의 작품을 소개하는 연구가 주를 이루었고, 석·박사 학위를 받는 연구자들도 소수에 그쳤다.<sup>3</sup>

\* 광주과학기술원 인문사회과학부 강의전담 부교수

- 1 김경희(2022), 「애국계몽과 낭만의 혼류: 20세기 초반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독일현대문학』 58, 한국독일현대문학회, p. 189.
- 2 자세한 내용은 김미지(2018),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괴테 수용과 ‘베르테르’ 번역 비교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민족문학사연구소, p. 345. 김경희(2022), pp. 190–191 참고.
- 3 정인모(2008), 「한국에서의 독일 소설 연구 50년」, 『독일언어문학』 42, 한국독일어문학회, pp. 98–99.

독일 문학 연구의 “확장 발전기”는 1980년대이다. 80년대에 시행된 졸업정원제의 영향으로 대학 정원이 증가되었는데, 이를 배경으로 독어독문학과도 양적으로 확장<sup>4</sup>되었다. 이러한 양적 확장은 질적 성장을 가져왔다. 대학원에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어 석·박사 논문 수도 상당히 증가하였으며, 하인리히 빌 등을 포함한 다양한 작가를 논구한 소논문들도 다량으로 발표<sup>5</sup>되었다.

바로 이 80년대에 『독일 비평사 읽기: 괴테부터 루카치까지』(길, 2025)의 저자인 임홍배 명예교수(서울대 독문과)는 독문학 연구를 시작했다. 1983년 학부 졸업 후, 같은 학교 대학원에 진학하여 1996년 괴테의 교양 소설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시대』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자는 루카치가 “독일 근현대문학에서 가장 중요한 작가로 괴테”를 언급했으므로 박사 학위를 괴테 연구로 받았음을 밝혔다. 문학 연구에 있어서 80년대의 또 다른 특징은 독일 근·현대문학이론을 대표하는 사상가 중 한 명인 게오르그 루카치의 텍스트가 적극적으로 논의되었다는 점<sup>6</sup>이다. 저자도 80년대 중반을 다음과 같이 회고했다. “제가 대학원에 다니던 80년대 중반 무렵 문학 전공자들은 대개 루카치를 공부했어요. 거의 봄이라고 할 정도였죠. 저도 한 몇 년간 인문대 선후배랑 루카치 강독도 하곤 했는데 특히 국내 처음으로 루카치와 토마스 만으로 독일에서 학위를 받고 오신 반성완 선생님과 성대 앞에 조그만 사무실을 빌려 매주 모여 공부했던 게 떠오르네요.”<sup>7</sup>

4 정인모(2008), p. 99.

5 정인모(2008), pp. 103–104.

6 첨언하면 한국현대문학 연구에서 ‘게오르그 루카치’의 저서는 1991–2002년에 가장 널리 인용되는 텍스트 중 하나였다. 자세한 내용은 황호덕(2012),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와 이론, 예비적 고찰 혹은 그래프·지도·수형도」,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pp. 74–77.

7 임홍배·이진실·조혜진(2017), 「독일 고전주의의 매력 속으로: 임홍배 교수 인터뷰」,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https://humanities.snu.ac.kr/community/department?md=v&bbsidx=853>(접속일: 2025. 12. 5.).

저자는 지난 40여 년 동안 연구자로서, 또 번역가로서 눈부신 업적을 쌓았다. 1999~2025년 서울대학교 독어독문학과 교수로 재직하며 「루카치의 괴테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1998), 「설리의 미적 교육론과 예술의 자율성 문제」(2001), 「아우슈비츠의 기억과 재현의 문제: 생존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2008), 「괴테의 상징과 알레고리 개념에 대하여: 총체성과 갑각적 구체성의 변증법」(2008) 등을 포함한 다수의 논문을 발표하였다. 『괴테가 탐사한 근대』(창비, 2014), 『독일 고전주의』(연세대학교 대학출판문화원, 2016) 등의 저서를 펴냈다. 헤르만 해세의 『나르치스와 골드문트』(민음사, 2002), 괴테의 『젊은 베르터의 고뇌』(창비, 2012), 토마스 만의 『로테, 바이마르에 오다』(창비, 2017) 하인리히 브륄의 『천사는 침묵했다』(창비, 2019) 등 번역서도 출판하였다. 뿐만 아니라, 저자는 한국 문단에서 비평가로 활발히 활동했다. 「90년대 소설의 흐름과 리얼리즘」(1993), 「괴테의 세계문학론과 서구적 근대의 모험」(2000), 「시와 혁명: 김수영 후기시의 ‘난해성’ 문제」(2003), 「이웃집 사회주의자의 초상: 정지아 장편소설 『아버지의 해방일지』」(2023) 등을 포함한 다수의 평론을 발표하였고, 『황석영 문학의 세계』(창비, 2002), 『살아 있는 김수영』(창비, 2005), 『김남주 시 전집』(창비, 2014) 등에도 공동 저자로 참여하였다.

『독일 비평사 읽기』는 임홍배 명예교수가 25년간 독일 문학과 비평을 연구한 결실이 집대성된 역작이다. 이 책에 실린 글과 글 사이에는 80년대부터 2020년대 중반까지 저자가 독일 문학과 이론을 연구하고 번역하는 데 헌신했던 그 시간이 켜켜이 쌓여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비평사 읽기』는 저자가 수행한 독문학 연구의 두터운 아카이브(archive)이다.

따라서 이 책은 연구자와 일반 독자 모두에게 근·현대 독일문학이론을 탐사하는 데 ‘등대’와 같은 길잡이가 될 것이다. 저자는 서문에서 괴테의 『파우스트』 1부에서 메피스토펠레스(mephistopheles)가 학생에게 한 유명한 조언(?)인 “모든 이론은 회색이요 영원히 푸른 것은 삶의 황금 나무”<sup>8</sup>를 인용하며, ‘실천’으로서의 이론 읽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저자가 독일 철학

사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의 텍스트에서 다시-발견한 것은 “비평 정신”이다. 이 책은 “그 푸르른 삶”을 새롭게 창조해내는 문학 텍스트를 “곡진히 해명”하는 일이 “비평의 최우선 과제”<sup>(7)</sup>임을 두 겹의 독해로써 고찰한다. 첫째, 각 이론의 쟁점을 치밀하게 독해한다. 둘째, 그렇게 읽은 이론을 문학 텍스트에 적용함으로써 다시 (생생하게) 이해한다.

이 책에서 저자가 제시한 독법은 표면적으로는 폐쇄된 텍스트로 보이는 문학 비평에 내장된 “빈칸”을 “비평적 내밀함”(intimacy)<sup>9</sup>으로 탐사하여 유연하고도 개방된 텍스트로서 이론을 다시 정립하는 방법론이다. 그러므로 『독일 비평사 읽기』는 치밀한 분석과 정연한 논리, 균형 잡힌 비평적 시각, 그리고 공동체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연구자의 치열한 고뇌 등이 종합되었을 때, 비평적 실천으로서의 이론 읽기가 보여주는 진경을 독자에게 선사한다.

## 2. 독법의 실험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텍스트는 연대기 순으로 배치되어 있다. 1부에는 독일 고전주의와 낭만주의를 대표하는 사상가의 문학 이론이 소개되었다. 저자는 괴테·뮐러·노발리스·슐레겔의 텍스트를 두루 살피며 주요 논점을 제시했다. 2부에서는 독일 근대 철학을 대표하는 칸트와 헤겔의 문학 이론을 고찰한다. 본격적으로 추(醜)를 고찰한 것으로 유명한 로젠크란츠의 미학이론과 ‘무의식’이라는 미지의 영역을 도입하며 현대문학 비평사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프로이트의 논의도 살폈다. 3부에서는 20세기 주요 사상가들인 크라카우어·하이데거·블루멘베르크·가다머의 문학

<sup>8</sup> 임홍배(2025), 『독일 비평사 읽기: 괴테부터 루카치까지』, 길, p. 7. 이후 같은 책의 인용은 페이지수만 표기함을 밝혀둔다.

<sup>9</sup> 가야트리 채크라보르티 스피박(2022), 안준범 역, 『읽기』, 리서울, p. 30.

이론을 제시하였고, 아우슈비츠 생존자들과 관련된 텍스트의 쟁점 또한 짚었다. 마지막으로 4부에서는 독일 현대 비판이론의 거장들인 벤야민·아도르노·루카치의 문학이론을 다루었다.

목차에 제시된 순서대로 책을 읽어 가면, 저자는 독일 근·현대 비평사를 대표하는 사상가들이 제출한 핵심 논제들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다. 저자는 사상가들의 난해한 이론의 쟁점을 명료하게 서술하였다. 이 책의 미덕이 비평사의 주요 논점들을 일목요연하게 제시했다는 것임은 분명하다. 하지만 저자에게 ‘읽기’가 비평적 실천임을 고려했을 때, 이 책의 진정한 미덕을 깊이 고찰하기 위해서는 다른 독해 방식을 고안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독일 비평사의 주요 테제들을 일별하기보다는 저자가 다음과 같이 제시한 읽기의 방법론을 성찰하는 방식으로 이 책에 수록된 글들을 음미해 보고자 한다. 첫째, 저자는 “18세기 아래 20세기까지 독일 문학이론과 미학의 역사에서 당대의 핵심적 화두로 부상했던 주제들을 그 시대적 배경 속에서 충실히 해명”(6)하고자 했다. 둘째, 지금, 여기(here and now)에서 독일 문학 비평사의 주요 텍스트들을 읽는다는 것의 의미를 짚어보고자 했다. 셋째, 비평가들의 텍스트에서 제출된 이론적 문제들을 구체적인 텍스트 읽기와 결합하여 살펴보고자 했다. 이를 중심으로 이 책에 수록된 텍스트를 네 가지 유형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 2.1. 역사적 조건에 유의하며 읽기

첫 번째 유형은 텍스트에 나타난 문제의식을 당대의 배경과 결부시켜 고찰하는 작업이 드러나는 글이다. 여기에는 (1) 「괴테의 상징과 알레고리 개념: 총체성과 구체성의 변증법」, (2) 「노발리스의 낭만주의 시학과 기억의 문제: 선형적 기억론과 낭만주의 상상력」, (3) 「니체의 언어관과 비판적 근대인식: 언어의 규약과 생성의 사유」, (4) 「하이데거의 예술론: 존재의 말 없는 부름에 귀 기울이기」 등이 포함된다. 앞에서 저자가 괴테 연구로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괴테에 대한 다수의 논문과 저서를 출판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한 저자의 연구 이력을 고려하여, 괴테에 대한 글인 「괴테의 상징과 알레고리 개념: 총체성과 구체성의 변증법」에 주목해볼 수 있겠다.

이 글에서 저자는 기존의 문학예술론에서 크게 주목받지 못했던 '상징과 알레고리'를 괴테가 본격적으로 논의했음을 밝히고, 상징에 대한 경사와 알레고리에 대한 비판이 괴테의 시대적 한계와 유관함을 살폈다. 다르게 말하면, 괴테의 '상징과 알레고리' 논의의 배경, 주요 쟁점, 그리고 수용사를 두루 살피며 저자는 개념에 대한 유연한 접근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 당시는 독일문학사에서 "고전주의와 낭만주의 문학 이념이 정립되고 그에 상응하여 풍요로운 창작의 결실"(39)을 수확했던 시기였다. 중요했던 것은 예술의 자율성이었다. 과거 종교 혹은 철학의 시녀로 복무했던 예술은 독자적으로 진리를 재현할 수 있는 자율적인 영역으로 정립되었다. 따라서 예술의 주요 목적은 보편적인 것으로서의 인간성을 재현하는 것이었다(45-46).

괴테는 작가로서 그의 역량이 무르익었던 원숙기에 그러한 문학사적 과제를 접수하였고, 상징과 알레고리에 주목했다. 그에게 상징은 "경험적 개별성을 넘어서는 총체성을 내포하되 결코 특정한 개념으로 환원될 수 없는 표현 대상의 고유한 독자성 또한 강조"(43)하는 것이었다. 즉, 상징은 보편과 특수를 공히 아우르는 것이었다. 하지만 괴테는 알레고리를 상징에 비해 예술적 수단으로서 불충분한 것으로 인식했다. 알레고리는 기성의 관념에 갇혀 감각적으로 특수한 것만을 재현하는 것이었다. 바꿔 말하면, 괴테에게 구체적 예시에 주목하는 알레고리는 작가 개인이 자신을 초월하여 보편적 인간에 도달하는 데에 발휘해야 할 상상력을 제약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적이었다(46-52).

저자는 괴테의 상징과 알레고리에 대한 관념에 내장된 "교양"(Bildung) 이념을 근간으로 하는 고전주의 미학의 예술적 이상"(54)에 대해 지적하며, 그러한 고전주의적·계몽적 이상이 현대 사회에서는 그 실효성을 잃었음을 언급하였다. 그리고 알레고리를 풍요롭게 활용한 보들레르(Charles

Baudelaire)의 시 「백조」, 그리고 알레고리에서 새로운 현대 예술의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제시한 벤야민의 논의를 예로 들어 상징과 알레고리의 위상이 변화했음을 언급했다. 하지만 벤야민과 달리, 리얼리즘 미학을 대표하는 루카치는 ‘전형성’을 중심으로 괴테의 상징 개념을 적극 수용함을 밝혔다(53-55).

## 2.2. 현재적 의의를 성찰하며 읽기

두 번째 유형은 독일 문학 비평 텍스트의 현재성을 성찰하는 글이다.

(1) 「지구화 시대에 다시 읽는 괴테의 세계문학론」, (2) 「칸트의 계몽 개념: 자율적 주체와 이성적 사회를 향하여」, (3) 「헤겔 미학에서 소설론의 두 갈래: 서사시의 계승과 낭만적 예술의 극복」, (4) 「로젠크란츠와 ‘추의 미학’: 미(美)와 추(醜)의 변증법」, (5) 「루카치의 괴테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괴테의 상징론과 루카치의 리얼리즘론」, (6) 「다시 읽는 루카치의 리얼리즘론: 시적 정직성과 내포적 총체성의 과제」 등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여섯 편의 글 중 저자가 처음 독문학을 연구하던 시기에 탐독했던 루카치에 대한 글이 두 편 포함되어 있음이 확인된다. 여기에서는 「다시 읽는 루카치의 리얼리즘론」<sup>10</sup>을 자세히 읽어보면 아래와 같다.

이 글에서 저자는 20세기 리얼리즘을 대표하는 사상가 중 한 명인 루카치가 남긴 과제가 “전형과 총체성을 변화된 현실 속에서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555)임을 밝혔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저자는 ‘전형’과 ‘총체성’을 중심으로 문학 이론을 자세히 검토하고, 루카치가 수행한 문

<sup>10</sup> 첨언하면, 서문에서 저자는 이 책에 실린 루카치에 대한 두 편의 글 중 「루카치의 괴테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괴테의 상징론과 루카치의 리얼리즘론」은 이 책에 수록된 글 중 제일 먼저 쓴 글임을 밝혔다. 「다시 읽는 루카치의 리얼리즘론: 시적 정직성과 내포적 총체성의 과제」는 가장 나중에 쓴 글에 해당된다(9). 두 글을 비교·분석함으로써 저자가 성취한 연구의 깊이를 해아려보는 것도 중요한 작업일 것이나, 그것은 이 글의 범위와 의도를 벗어나는 일임을 덧붙여 둔다.

학 텍스트 비평을 비판한 후, 루카치 이론의 능동적·비판적 수용을 위해 나아가야 할 길을 제시한다. 루카치가 변증법적 유물론에 입각하여 예술 작품의 가치와 위상<sup>11</sup>에 대해 논했음은 유명하다. 예술이 “유물론이 이미 제공했던 진실을 장식적으로 반복하는 것”<sup>12</sup>으로 취급된다는 점을 들어 그의 이론에 비판을 제기하는 논자들도 있다.

먼저, 저자는 루카치가 정립한 리얼리즘의 이론적 토대를 괴테와 헤겔이 제출한 ‘특수성’으로 제시한다. 루카치에게 ‘총체성’은 “현실의 총체”, 즉 “역사의 근본적인 추동력과 그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모순”(511)을 의미했다. 또한 ‘특수성’은 “보편성과 개별성 사이를 오가면서 양극단을 부단히 지양해가는 “운동의 중심” 또는 “조직화하는 중심””(513)을 뜻했다. 여기에서 중심은 고정불변의 것이 아니라 “현실의 역동적 운동에 상응하는 동적인 것”(514)을 의미하는데, 이것은 루카치가 과학적 영역과 구별되는 것으로서 미적 특수성을 사유했음을 드러낸다.

이와 같이, 저자는 루카치 문학 이론의 핵심 개념인 ‘전형’과 ‘총체성’이 미적 특수성에 대한 사유에서 산출되었음을 밝힌다. 그리고 그의 이론적 전사(前史)를 앵겔스의 리얼리즘론으로 제시했다(516-518). 루카치는 전형을 “보편성과 개별성을 통합하고 작품 전체를 ‘조직하는 중심’인 특수성이 일정한 형태로 구체화된 형상”으로, “소설의 가장 중요한 구성 요건”인 총체성은 “사회현실이 작동하는 전 과정을 본질적으로 규정하는 요인들의 연관성에 대한 총체적 인식의 형상화”(516)로 규정했다. 이러한 전형과 총체성이 잘 드러나는 문학 텍스트로 괴테의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를 꼽았다. 프랑스 혁명 이후 발표된 작품임을 고려했을 때, 『빌헬름 마이스터의 수업 시대』는 “폭력적인 혁명을 치르지 않고 구체제를 극복할 수 있는

11 베르너 읉(2021), 장희창 역, 『미학사 입문: 미메시스에서 시뮬라시옹까지』, 필로소피, p. 202.

12 카이 함머마이스터(2013), 신혜경 역, 『독일 미학 전통: 바움가르텐부터 아도르노까지』, 이학사, p. 287.

길”(523)에 대한 전망을 개진한 텍스트로 볼 수 있다. 그리고 엥겔스와 마찬가지로, 발자크의 『잃어버린 환상』도 리얼리즘을 탁월하게 성취한 텍스트로 평가한다. 소설의 주인공 뤼시앵의 과열은 개인적 불운으로 풀이될 수 없는 것이며, 역사의 발전 방향과 유관하다. 그는 “시대의 대세에 거슬러 다시 귀족으로 돌아가고자” 했으며, 한편 “냉혹한 자본주의적 경쟁은 어수룩한 룸펜 문필가의 여행을 용인하지 않기 때문”(531)에 비극적인 최후를 맞았다. 무엇보다, 루카치는 “작가적 정직성”이 리얼리즘의 승리를 성취하는데 있어서 핵심 요건임을 주장한다. “작가적 정직성”은 “자신의 주관적 신념에 얹매이지 않고 현실을 편견 없이 관찰하는 태도”(532)를 의미한다.

하지만 저자는 루카치가 20세기의 광의의 모더니즘에 대해 비판적임을 언급하며, 그의 이론적 태도의 한계를 지적한다. 루카치는 모더니즘 작품들이 “낭만적 반(反)자본주의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고 현실에 대한 총체적 인식에는 이르지 못했다”(542)라고 비판했다. 그러나 저자는 그러한 비판이 모더니즘 텍스트 일반에 적용될 수 없음을 주장하며, 이러한 한계를 입증하는 대표적인 텍스트로 카프카의 소설을 꼽는다. 루카치는 ‘전형’을 비평적 기준으로 삼고, 카프카의 텍스트에 재현된 알레고리도 “개별자를 전형성으로 고양시키지 못한 채 초월성과 관계 맺는 무매개적 추상성”(545)이 나타나는 모더니즘 특유의 한계를 드러낸다고 비판했다. 저자는 루카치의 그러한 비판이 카프카가 발자크와는 상이한 역사적 조건 아래에서 텍스트를 생산했음을 간파한 해석이라고 논한다.

그렇다면, “발자크의 리얼리즘을 모델로 삼는 리얼리즘 개념을 불변의 규범”(548)으로 삼아 구축된 루카치의 문학이론은 그 시효를 다한 것일까? 저자는 루카치 이론을 폐기해야 할 낡은 텍스트로 선언하지 않는다. 저자는 루카치 이론의 한계를 적시한 카프카의 텍스트 중 「변신」을 중심으로 다시, 그 생신 가능성을 모색한다. 앞에서 루카치의 문학이론에서 특수성은 운동성을 내장한 개념임을 밝혔다. “조직화하는 중심”으로서의 특수성을 규명하는 작업은 “난제”(514)이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시대, 장르, 작가의 스타

일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변신」은 발자크의 텍스트와는 ‘다른’ 방법론인 “추상적 알레고리”로써 “보편적인 것과 개별적인 것을 절묘하게 결합”(552)하여 리얼리즘적 성취를 이룬 텍스트로 볼 수 있다.

### 2.3. 문학 텍스트와 겹쳐 읽기

세 번째 유형은 독일 미학 이론을 구체적인 문학 텍스트에 적용하여 이해한 것이다. 이 책에 실린 글 중 「프로이트의 ‘두려운 낯섦’과 호프만의 「모래 사나이」: 정신분석 비평과 텍스트의 심층 구조」와 「아도르노의 비판적 변증법과 부정성의 미학: 20세기 폭력과 광기에 대한 비판적 성찰」 등이 여기에 포함된다.

「아도르노의 비판적 변증법과 부정성의 미학」은 20세기 독일 철학을 대표하는 사상가 중 한 명인 테오도어 아도르노(Theodor Adorno, 1903-1969) 미학의 주요 쟁점을 소개하는 글이다. 이 글의 특징은 미매시스, 자연미 등에 대한 아도르노의 이론을 개괄하는 작업을 넘어서, 아도르노가 언급한 ① 뢰리케의 「쥐덫」, ② 휠델린의 「하르트 골짜기」, ③ 괴테의 「나그네의 저녁 노래」, ④ 보르샤르트의 「새벽 이별가」, 그리고 ⑤ 첼란의 「꽃」과 「쉬볼렌」 등의 시 텍스트에 아도르노의 개념을 분석적으로 적용했다는 점에 있다.

아도르노의 예술과 문학 이론은 “동시대의 극단적 폭력과 광기의 경험에 대한 비판적 성찰”(437)에서 출발했다. 그의 미학적 사유의 핵심은 ‘부정성’에 있으며, 그가 제출한 부정 변증법이 헤겔 철학에 대한 강도 높은 비판에서 출발했음을 잘 알려져 있다. 아도르노는 문학을 포함한 예술이 “사회 현실의 진보적 변화에 기여한다는 점을 긍정하면서도, 그것은 작가의 신념이나 세계관을 통해서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예술의 자율성을 통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469)하였다. 모더니즘 예술의 부정성에 주목한 아도르노의 이론에서 예술로써 수행하는 실천의 가능성에 축소되어 나

타남을 비판한 논자<sup>13</sup>들도 있다. 그러나 저자는 아도르노의 미학 이론을 시에 적용하여 텍스트에 나타난 미적 효과를 분석함으로써 아도르노가 주장한 부정적인 것으로서의 예술이 갖는 자율성을 입체적으로 고찰했다.

저자는 아도르노의 미학적 사유 형식인 부정적 변증법이 “어느 한 지점에서 전적인 궁정성으로 종결될 수 없는 변증법적 사유의 항구적 운동”(443)을 의미함을 밝혔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예술을 “다른 모든 정신활동 및 대상과 구별되는 고유한 자기 영역”(443)을 갖고 있는 것으로 인식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미메시스는 실존하는 대상을 단순히 모방함을 의미하지 않고, 작품이 “다른 어떤 것을 흉내 내어 작품 속의 독특한 구조로 변형함으로써 실제 대상을 넘어서는 무엇인가를 표현”(445)함을 의미한다. 이러한 미메시스가 드러나는 작품으로 아도르노는 뢰리케의 「쥐덫」을 예로 들었다. 저자는 이 텍스트에 나타난 ‘쥐잡기’가 쥐의 제거에서 화자인 어린이의 천진함을 매개로 쥐, 고양이와 함께하는 놀이로 변용되어 재현되었음을 밝혔다. 현실에서 쥐는 ‘쥐잡기’, 즉 박멸의 대상이라는 점에서 혐오의 대상이 된 소수자들을 의미할 수 있지만, 시에서 공존의 대상으로 나타난다는 점에 주목했을 때, 쥐잡기를 ‘미메시스’한 이 시는 관습적 현실을 비판함도 제시했다(445-449).

한편, 저자는 아도르노의 ‘자연미’를 “명확한 개념적 규정 가능성에서 벗어나는 것”(452)으로 제시하고, 이를 훨덜린의 「하르트 골짜기」, 괴테의 「나그네의 저녁 노래」 및 보르샤르트의 「새벽 이별가」를 통해 살폈다. 훨덜린의 시에서는 인간이 규정한 ‘역사’의 개념이, 괴테의 시에서는 자연과 합일 불가능한 개인이 재현됨으로써 인간적 척도를 벗어나는 ‘자연미’가 나타난다. 아울러 보르샤르트의 시에서 저자는 “한 노인이 푸른 여명의 가장자리에서/어스름 박명(薄明) 속으로 나타난다:/아직 태어나지 않은 하느님 당신을 위해/나는 살아갈 것입니다”(460)라는 구절에 주목했다. 그는 “푸른 여

---

13 카이 함머마이스터(2013), p. 355.

명”을 직역하면 “첫 푸르름(das erste Blau)”(460)인데, 이 구절이 성경의 창세기에 나타난 ‘태초의 빛’을 환기함을 언급했다. ‘노인’의 생애에서 무수히 반복되었을 새벽의 그 “첫 푸르름”에 노인이 아직 “가장자리”에 있다는 점, 그리고 그 노인이 희구하는 “하느님”이 아직 이 세상에 오지 않았다는 것은, 그가 희구하는 태초의 빛이 아직 실현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요컨대 ‘첫 푸르름’과 “아직 태어나지 않은 하느님”은 “아직 실현되지 않은 가능성”을 품은 자연미”(461)로서 현실의 언어로는 전달할 수 없는 비의적인 것이다. 이러한 ‘비의성’을 내장한 시의 언어는 상품과 마찬가지로 도구적 수단으로 전략한 현실의 언어를 비판하는 수단이 된다(462).

이처럼 저자는 미메시스와 자연미를 중심으로 예술이 수행하는 현실 비판적 기능을 텍스트 분석으로써 살펴보았다. 이러한 맥락에서 저자가 주목하는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아도르노가 제시한 예술의 의미이다. 아도르노가 아우슈비츠 이후 시를 쓰는 일은 ‘야만적’임을 주장했음을 유명하다. 하지만 저자는 아도르노의 그러한 주장이 예술 창작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의미하지 않음을 밝혔다. 서정시를 쓸 수 없는 시대에 직면해서 아도르노는 “아우슈비츠의 극한적 고통을 예술적으로 체험 가능한 것으로 형상화되되, 전통적 의미에서의 예술적 향유와는 근본적으로 단절된 새로운 미적 체험을 제공”(464)해야 함을 주장했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한 텍스트로는 첼란의 시를 꼽을 수 있다. 저자는 첼란의 「꽃」과 「쉬볼렛」을 독해하며 아도르노의 논점을 검토한다. 난해한 텍스트로 유명한 첼란의 시에서 저자는 ‘희망’을 발화하는 새로운 언어를 짚어낸다. 「꽃」에서는 “별이 돌덩이로 죽은 암흑 속에서 꽃이 피어나고 말이 탄생하고, 그리하여 사멸했던 시적 아우라가 다시 살아나는 언어적 과정”(468)을 읽어낸다. 「쉬볼렛」에서는 “성경 언어의 전통과 권위에 거스르는 첼란 특유의 반어(反語, Gegenwort)”로 “경험 현실과는 다른 세계를 꿈꾸는 모든 사람이 공유하는 신비의 상징”인 “아인호른”(476)에 대한 유토피아적 충동이 재현된다.

## 2.4. 시계(視界)를 넓히며 읽기

마지막으로, 번역가로서 독일 문학 비평사를 두텁게 읽은 저자의 면모가 잘 드러나는 글을 살펴볼 수 있다. 「크라카우어의 비판적 문화이론: 물질적 구체성과 직관적 구성의 변증법」과 「블루멘베르크의 은유 이론과 ‘별거벗은 진리’의 은유: 개념적 사유를 넘어선 ‘절대적 은유’의 탐구」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지크프리트 크라카우어와 한스 블루멘베르크는 공히 현대 독일 문학 비평사를 대표하는 사상가이나, 한국에 널리 알려지지는 않았다. 저자는 크라카우어의 저작은 “오늘날 인문사회과학의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학제적 연구의 선구적 본보기”(258)에 해당되며, 크라카우어가 문화 이론에서 거둔 성취에 대한 입체적 연구가 필요함을 밝혔다. 아울러, 한스 블루멘베르크를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독일 사상가 중 주목해야 할 인물로 꼽았다. 저자는 블루멘베르크의 이론적 토대인 은유학을 중심으로 미완의 저작 『별거벗은 진리』에 대해 논의했다. 별거벗은 진리는 “개념으로 정형화될 수 없고 언어적 재현을 거부하면서도 언어적 구성물의 방식으로만 존재하는 진실/진리에의 접근 방식”(381)을 의미함을 고찰했다.

## 3. K-독문학 아카이브를 향하여

『독일 비평사 읽기』는 저자가 20년이 훌쩍 넘는 시간 동안 대학에서 실천한 교육의 결실이기도 하다. 저자는 이 책에 실린 상당수의 글을 “대학원 수업에서 강독과 토론 과정을 거치고 나서 나중에 집필”(10)했음을 밝혔다. 이 책은 근·현대 독일문학이론의 정전을 다룬다는 점에서 개론서로도 볼 수 있다.

교육 현장에서 “길라잡이 지식”으로서의 문학사 교육<sup>14</sup>은 여전히 겸토 대상이다. 2000년대 이후 ‘정전에 바탕을 둔 문학사 기술’이 연구자들에게

비판적으로 접근해야 하는 과제가 되었음은 연구사적 상식에 속한다. 하지만 입시 교육으로 인하여, 대학에 입학해서야 문학을 ‘처음’ ‘제대로’ 읽어 보려는 열망을 실현할 수 있는 여유를 갖게 된 학생들은 “길라잡이 지식”으로서의 문학사와 문학비평사 교육을 요청한다. 해석의 정답이 주어지지 않은 문학 텍스트 그 자체가 낯선 독자들에게, 최신의 연구 성과를 반영한 문학사들은 그들을 미지의 세계로 인도할 수도 있지만, 도통 출구가 보이지 않는 미로 속에 갇혀 있다는 혼란을 그들에게 줄 수도 있다. 따라서 교육의 방법론을 새롭게 고안하는 일은 여전히 긴요하다. 암기 위주의 주입식 교육에서 벗어나 “역사적인 텍스트를 스스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인 “역량”<sup>15</sup>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강의가 진행되어야 함은 여러 선행 연구에서 논의되었다. 예를 들어, 강의를 통해 학습한 ‘정전’으로 규정된 텍스트의 현재적 의의를 학생들이 자기 주도적으로 탐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에서 독일 문학을 연구하는 일의 의의를 가이드라인으로서 제시하는 작업도 학생들이 역량을 강화하는 데 필요할 것이다. 이 책에서 저자는 독일 문학이론 텍스트와 한국현대문학 비평이론을 상호텍스트적으로 독해할 수 있음을 간략하게 진술한 바 있다. 그중 한 대목을 인용해보면 이렇다.

추의 미학에 함축된 그런 현실 비판적 잠재력은 한국 현대 문학사의 한 장면과도 연결되어 이목을 끈다. 염무웅 선생의 증언에 따르면 시인 김지 하가 대학 시절 로젠크란츠의 추의 미학을 소개하는 학술 발표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자리에서 김지하는 “괴기·왜곡·과장·골계·해학·풍자 등 정통 미학에서 저급한 것으로 취급해오던 미학적 요소들의 적극적 가치를 설명 하는 내용”으로 발표했으며, 이로써 “로젠크란츠의 미학을 발판 삼아 우리

14 라영균(2022), 「문학 교육과 문학사: 독일 중등학교와 우리 대학의 독문학사 교육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8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p. 56.

15 라영균(2022), p. 62.

고유의 전통 예술에 새로운 미학적 생명을 불어넣을 이론적 전이轉移를 시도하고 있었던 것이다.”<sup>16</sup> 아마도 그런 창조적 수용의 결실이 나중에 독재 정권과 지배 세력에 대한 통렬한 풍자로 암울한 현실을 고발했던 김지하의 담시譚詩 「오적五賊」, 「비어蜚語」 연작으로 표현되지 않았을까 짐작된다.(202)

로젠크란츠가 미학적 개념으로서의 추(醜)를 정초한 근대미학 사상가임은 앞에서 간략히 짚었다. 로젠크란츠 이전의 미학사에서는 미(美)와 달리 추(醜)는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어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않았다. 다만 헤겔 미학의 연장선상에서 추(醜)에 대해 논의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그의 미학 사상은 시대적 한계를 완전히 넘어서지는 못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지만 그의 저서인 『추의 미학』은 “고전주의 미학의 규범에서 벗어나는 새로운 예술 현상을 넓은 의미에서 ‘추함’의 범주로 수용하고 적극적으로 평가”(201)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이러한 추의 미학은 김지하 시인이 민중을 새로운 문학적 주체로 정립하는 데 이론적 토대<sup>17</sup>로 작동했다. 70년대 민족문학을 대표하는 문인 중 한 명인 김지하는 60년대 시인인 김수영의 문학을 부정함으로써 새로운 문학을 제출한다. 「풍자냐 자살이냐」(1970)는 그러한 선언이 담긴 대표적인 글이다. 김지하는 김수영의 ‘소시민적’ 문학에는 ‘민중’이 결여되었음을 비판하며 70년대에는 김수영의 시가 실효성이 없음을 주장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인용문의 마지막 문장에서 가설처럼 제시한 논점이 조금 더 상술되었으면 『독일 비평사 읽기』의 논의가 한층 더 풍요로워졌을 것으로 보인다.

서두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한글로 독일 문학이 번역된 지 120년 가까

<sup>16</sup> 염무웅(2022), 「시인 김지하가 이룬 것과 남긴 것들」, 『창작과비평』 197, 창비, pp. 331–332 참고.

<sup>17</sup> 자세한 내용은 김지하(2002), 「풍자냐 자살이냐」, 『김지하전집 3』, 실천문화사, pp. 41–43.

이 된다. 지금까지 이 글에서는『독일 비평사 읽기』에서 독일문학비평 이론을 열린 텍스트로서 깊이 읽는 방법이 제출되었음을 살폈다. 한국 독일문학 연구사의 주요한 성과가 아닐 수 없다. 글을 닫자니, 독일문학사와 독일문학비평사를 한국에서 상호텍스트적으로 읽는 작업을 통해 그동안 축적해온 성과(archive)의 양태를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그러한 성과의 마중물인 연구자의 구체적 문제의식이 서문에 기술되지 않은 점은 조금 아쉽게 느껴진다. 필자는 한국 현대문학(현대시) 전공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현재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는 연구자이므로, 서평 쓰는 사람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 이렇게 글을 끝맺을 수밖에 없을 터이다.

## 참고문헌

### 자료

- 김지하(2002), 「퐁자냐 자살이냐」, 『김지하전집 3』, 실천문학사.  
임홍배·이진실·조혜진(2017), 「독일 고전주의의 매력 속으로: 임홍배 교수 인터뷰」, 서울대학교인문대학, <https://humanities.snu.ac.kr/community/department?md=v&bbsidx=853> (최종접속일: 2025.12.05.)

### 논저

- 가야트리 채크라보르티 스피박(2022), 안준범 역, 『읽기』, 리시울.  
김미지(2018), 「20세기 초 동아시아에서 괴테 수용과 ‘베르테르’ 번역 비교 연구」, 『민족문학사연구』 67, 민족문학사연구소.  
김경희(2022), 「애국계몽과 낭만의 혼류: 20세기 초반 한국의 독일문학 수용」, 『독일현대문학』 58, 한국독일현대문학회.  
베르너 용(2021), 장희창 역, 『미학사 입문: 미메시스에서 시뮬라시옹까지』, 필로소피.  
라영균(2022), 「문학 교육과 문학사: 독일 중등학교와 우리 대학의 독문학사 교육을 중심으로」, 『외국문학연구』 86,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염무웅(2022), 「시인 김지하가 이룬 것과 남긴 것들」, 『창작과비평』 197, 창비.  
정인모(2008), 「한국에서의 독일 소설 연구 50년」, 『독일언어문학』 42, 한국독일어문학

회).

카이 험머마이스터(2013), 신혜경 역, 『독일 미학 전통: 바움가르텐부터 아도르노까지』,  
이학사.

황호덕(2012), 「외부로부터의 격발들, 고유한 연구의 지정학에 대하여: 한국현대문학연구  
구와 이론, 예비적 고찰 혹은 그래프·지도·수형도」, 『상허학보』 35, 상허학회.

